전국 4만848가구 분양 '큰 장' 열리는데 광주·전남은 썰렁

광주, 분양 시장·경기 침체로 3개월 연속 개점휴업 상태 이어져
지방 15곳 중 전남은 '순천 푸르지오 더퍼스트' 560세대가 유일

광주·전남 분양시장이 썰렁하다. 다음 달 전국적으로 대규모 분양 시장이 열리는 상황과도 너무 다른 분위기라 지역 부동산업계가 한숨을 쉬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개점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여있는데다 소비자들의 수요 심리도 위축, 건설회사들이 적극적 공급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공공 용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만회할 여력이 없는 점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광주지역 분양 시장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턱없이 높은 분양가에 대한 외면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2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달 전국 42개 단지에서 총 4만848가구가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7월은 장마와 더위, 방학, 휴가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물량이 크게 늘어났다.

건설회사들은 고금리와 부동산 심리 위축으로 상반기 중 미뤄왔던 아파트 분양을,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시장에 쏟아내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전국의 7월 분양 물량을 살펴보면 2020년 3만6992가구, 2021년 2만2397가구, 2022년 2만62가구, 2023년 1만6547가구 등으로 올해가 가장 많다.

전체 공급 물량 중 수도권은 총 27곳, 2만784가구, 지방은 총 15곳, 1만3764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도 1만 가구가 넘는 세대가 공급되지만 광주에서는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560세대 규모의 '순천 푸르지오 더퍼스트'가 유일하게 분양에 나선다.

광주지역 아파트 분양이 멈춰선 건 지난 5월부터다. 현재로서는 지난 4월 있었던 중앙공원 롯데캐슬과 운암자이나포레나 퍼스티체가 광주지역 마지막 분양이다.

건설회사들이 광주지역 분양을 미루고 있는 건 위축된 투자수요와 미분양 물량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날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 4월까지 광주의 미분양 주택은 1721세대로 전달 1286세대보다 33.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청약에 나섰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 성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분양 세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시장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아파트를 옮기는 대신, 기존 주택에서 머무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4주(6월 24일기준) 광주의 아파트전세가격은 전(前)주 대비 0.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6월 들어 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광산구(-0.06%)는 월계동과 신창동, 월곡동 중소형 구축을 중심으로, 서구(-0.04%)에서는 풍암동과 화정동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다.

전남의 경우 전세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번주 0.02% 감소했다.

매매가격 또한 광주와 전남 모두 전주보다 0.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투자수요 위축과 미분양 문제로 광주 분양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 이후에나 건설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분양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타, 안전문화실천 다짐

금호타이어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광주전남 제조업자율안전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2024년 안전문화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재해 예방을 다짐했다. 〈금호타이어 제공〉

혼인율 감소에 점점 줄어드는 청년들

통계청 통계개발원 분석
2050년 청년 비중 11% 전망

우리나라 청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27일 이같은 제목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총인구 중 청년세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31.9%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2020년의 경우 청년 인구 비중은 20.4%까지 내려갔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청년 인구 비중이 1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세대 혼인율도 감소세로 지난 2020년 기준 81.5%가 미혼 상태다. 남자는 86.1%, 여자는 76.8%의 청년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

30~40대 미혼율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연령대로 꼽혔다. 2020년 미혼율이 56.3%로 20년 전(18.7%)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대학 이상 졸업자의 비중은 2010년에 50.5%로 처음으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 2020년 대학 이상 졸업자는 53.0%로 남자 58.4%, 여자 47.8%였다.

청년 세대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2020년 62.5%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63.9%, 61.1%가 경제활동인구였다.

'국제 아동 지표 체계 기반 수도권 아동·청소년 웰빙 현황'도 나왔다.

분석 결과 2021년 수도권 아동·청소년(만 0~17세) 중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39.7%로 비수도권(37.9%)보다 1.8%포인트(p) 높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야쿠르트 가세 더욱 '핫'해진 배달앱 시장

최저 수수료·무료 배송 내걸어
배민·요기요·쿠팡이츠와 경쟁
지역 공공배달앱 경쟁력 갖춰야

배달앱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무료배달로 2라운드 경쟁이 불붙은 상황에서 hy(옛 한국야쿠르트)까지 정식 출사표를 내고 뛰어들면서 시장 변화를 이끌어낼 지 주목되고 있다.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을 위해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되는 공공배달앱 시장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hy는 이날 배달앱 '노크'(Knowk)를 출시하고 서울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배달앱 시장에 진출했다.

hy는 동네 정육점, 반찬가게 등 소상공인과 협업해 신선식품과 비식품 영역까지 배송품을 확대할 계획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상권과 협업'을 핵심 가치로 두고 음식점주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 수수료', '무료 배송'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배달앱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서울 강서구 내 900개 상점이 입점해 있는 상태로, hy도 고객에게 음식을 무료로 배달하기로 했다. 별도 회원 가입이나 구독료 없이 각 상점이 설정한 최소 금액만 충족하면 무료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쿠팡이츠는 지난 3월 26일부터 쿠팡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묶음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민족도 알뜰배달(묶음배달) 배달비가 무료인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시작했다. 배민클럽은 현재 무료이지만, 몇 달 안에 유료로 전환된다.

업계 최초로 배달비 무료 멤버십 '요기패스X'를 선보인 요기요는 지난 4월 구독료를 월 4900원에서 2900원으로 내렸다.

hy는 점주 부담도 낮췄다.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5.8%)을 적용하고 광고비와 가입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배민의 경우 무료 배달 대상 업체가 되려면 6.8%의 수수료에 더해 점주 부담 배달비 2500~3300원을 부담하는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쿠팡이츠 역시 9.8%의 수수료에 배달요금 2900원인 '스마트 요금제'에 들어야 하고, 요기요 역시 수수료를 12.5% 부담한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hy의 시장 진출로 업체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hy가 서비스를 하지 않지만 언제든 서비스 검토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 공공배달앱 시장의 활성화를 꾀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광주시는 공공배달앱 '위메프오'에 이어 '땡겨요'를 추가하고, 2개 운영사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전남에서는 먹깨비와 '땡겨요'를 운영중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원·수급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위, 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 등이 조사대상이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올해 실태조사는 예년과 달리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 조사항목으로 추가했다.

실태조사는 우편을 받은 사업자가 조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조사 기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와 관련된 통합상담센터와 1대 1 SNS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보, 7월부터 소상공인 500억 특례보증

광주신용보증재단(이하 광주신보)이 7월 1일부터 '2024년 광주광역시 하반기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에 나선다. 하반기 특례보증은 올해 2월 시행한 1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의 연장선이다.

광주신보는 지난 21일까지 7300여건에 1800억원을 신규 보증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특례보증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년간 3~4%의 이자를 지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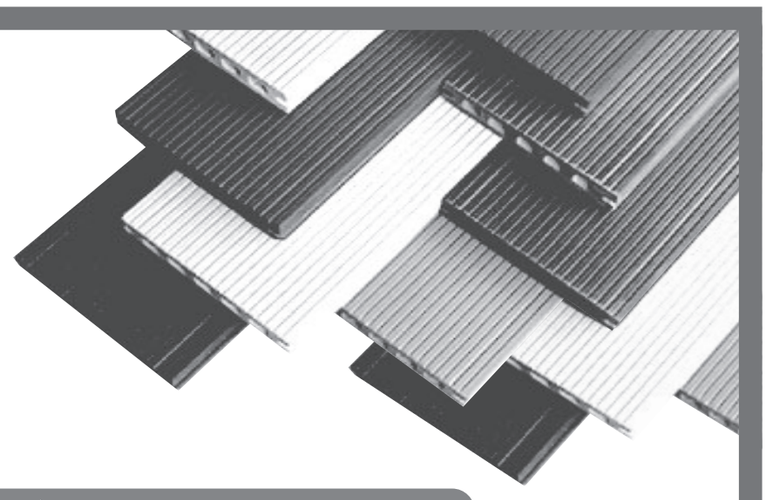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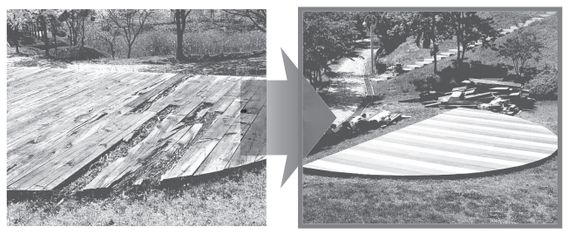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